

I. 서론

1. 연구배경

-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은 보장기능(사망위험보장, 노후소득 보장), 금융투자, 세제혜택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장기간 유지가 필요함.
- 위험보장기능은 보험료납입기간(연금재원 적립기간) 동안에 사망 시 일정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며, 연금개시 이후에는 일정수준의 연금액을 보장하여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공함.

〈그림 I -1〉 변액연금보험의 경제적 기능



- 일반보험과 달리 계약자가 자산운용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금융투자 기능이 있고,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절세형 상품임.¹⁾
- 생명보험 산업은 2000년 이전까지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, 2000년대 들어 종신보험과 더불어 변액연금 등 변액보험을 통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함.
 - 변액연금보험은 인구고령화와 펀드투자 붐을 계기로 생명보험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0.9%에서 2010년 12.2%로 급증함.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변동에 따른 리스크헤지가 변액연금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.²⁾
- 글로벌 금융위기는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한 보험회사들이 시장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고³⁾, 소비자들이 수익률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고 최근에는 수익률 논쟁으로 이어짐.
 - 더구나 소비자가 변액연금의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료의 납입과 그 용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으로 인식됨.⁴⁾
 -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는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변액연금 상품의 실효수익률(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비율)이 인플레이션율을 하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보험업계와의 수익률 논쟁을 촉발함.

1) 다만,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설상품이나 즉시납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년 유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(2012. 8. 8)이 발표된 바 있음.

2) 보험개발원(2011).

3) 이경희(2012b).

4) 2006년 변액연금보험의 민원건수는 1,175건으로 생보전체의 56.1%를 차지했고, 2010년에는 2,418건으로 전체의 47.9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금융감독원(2011).

○ 논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소비자들의 변액연금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나고 신계약 판매량이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.⁵⁾

■ 변액연금의 수익률 논쟁을 통해서 판매 과정의 부실과 소비자의 이해 부족 그리고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.

○ 변액연금보험은 소비자의 사망 시점까지 보장하는 초장기 보험상품이므로 사업비 부과방식이 수익률 변동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는 공시제도의 문제가 있음.

○ 또한, 일반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선취(front-end-loading)하는 방식⁶⁾의 상품설계로는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.

■ 이에 본고는 변액연금의 수익률 논쟁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비자 상품공시의 개선과 변액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상품설계의 개선을 살펴보고자 함.

2. 연구범위

■ 본 보고서는 변액연금의 특징, 수익률 논쟁, 논쟁에서 도출된 공시제도 및 상품설계 개선이라는 4개의 틀을 6개장에서 논의함.

○ 변액연금의 수익률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보장기능에 대한 논의를 위해

5) 변액연금보험 판매량은 전월대비 41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(2012년 3월 말 기준 68,780명에서 4월 말 기준 40,614명으로 감소). 서울신문(2012. 06. 20).

6) 국내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선취와 후취(back-end-loading)의 용어는 사업비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전 보험료인가 투자 후 적립금인가를 기준으로 함. 선취는 보험료 납입 시점에서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고 잔여 보험료를 투자하는데 비해, 후취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투입하여 운용한 후 적립금 기준으로 사업비를 부과함.

- 일반보험 및 펀드와 다른 변액연금의 구조적 특징(제Ⅱ장)을 먼저 설명하고,
- 변액연금 수익률 논쟁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대안을 도출(제Ⅲ장)한 후,
 - 크게 변액연금보험의 공시제도 개선(제Ⅳ장)과 상품설계의 변화와 판매 개선(제Ⅴ장)을 제안함.

3. 선행연구

- 금융소비자연맹(2012)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의 실효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여 정보공시 개선 논의를 이끌어냄.
 - 사업비를 중심으로 한 가격평가와 수익률 평가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들을 비교하여 저조한 실효수익률을 지적하여 정보공시 개선과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이끌어 냄.
 - 특히, 변액연금보험에 대하여 소비자가 납입보험료 중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과 비용 정보에 대한 비교공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.
 - 그러나 사업비를 반영한 실효수익률과 관련하여 보험 본래의 위험보장 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펀드수익률 개념을 변액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도 있음.
- 이에 대해 송홍선(2012)은 미국의 변액연금 규제를 근거로 변액보험을 보험 상품이 아닌 투자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하며, 자본시장법이 아닌 보험업법이 변액연금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.
 - 그러나 Sugano(2006)는 대다수 주가 변액연금의 판매규제와 관련하여 보험상품으로 보고 있고,
 - 투자보증이 없었던 변액연금을 유가증권의 틀에서 규제하기 시작한 미국의 전통과, 처음부터 투자보증이 있는 변액연금을 취급한 국내 상황을 현재 시점의 미국 규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있음.

- 한편, 지범하 외(2012)는 공시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정보공시의 개선방향을 제시함.
 - 국내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소비자 위주의 공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.
 -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단계별 요구지식의 실시간 제공, 상품 외 필수정보의 유기적 제공방안 모색, 정보사이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제안함.

- 변액연금보험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에 대한 연구로는 오창수(2009)가 있음.
 - 현행 선취 방식의 수수료부가체제로 인하여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가 계약자계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타 금융권의 상품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고, 가입 초기 신계약비의 집중적 부가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.
 - 이에 오창수(2009)는 사업비 후취방식의 상품 도입과 그에 따른 영향분석을 제시함.
 - 사업비 후취방식을 도입할 경우 변액 일시납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월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, 유지관련비용(M&E)과 해약공제율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함을 제시함.
 - 또한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제도와 예정사업비관련규정, 준비금적립 및 해약환급금관련규정이 후취상품구조에 맞게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.